

‘최초·최연소’ 사나이... 아시아 넘버원 금융투자회사 꿈꾼다

(보험사 PF 도입·대형증권사 IB 그룹장)

CEO 리서치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직원 도움 없이 회사는 성장할 수 없으며, 회사의 성장은 곧 임직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넘버원(No.1)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1월 2일 취임하며 외친 포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순이익 규모와 증가율 측면에서 ‘1위’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의 호실적 기반에는 김성환 대표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업별 ‘고른 성장’을 이룬 동시에, 과거 여러 부문을 두루 섭렵한 역량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선구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 한투증권 최연소 타이틀 다 가진 ‘젊은 수장’ 일냈다

한투증권은 호실적이 이어지는 증권가에서도 눈에 띄게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은 7109억원, 영업이익은 7752억원으로 모두 700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 동기 대비 상반기 순이익은 64.9% 증가한 셈이다.

2분기만 따로 봐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올린 지난 1분기와 비교되는 수치를 자랑한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40.2% 증가한 3834억원을, 순이익은 102.5% 증가한 3422억원을 기록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개인고객 금융상품잔고(62조6300억원)가 반년 새 10조원 가까이 불어났는데 따른 자산관리(AM) 부문이

실적 상승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투증권의 여러 부문을 두루 거친 김성환 대표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대표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한투증권을 이끈 정일문 전 대표(현 증권 부회장)의 뒤를 이어 올해 초 취임했다. 1969년생인 김 대표는 교보생명보험에서 보험사 최초로 PF를 도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01년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04년부터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에 합류한 지 19년 만에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한투증권에 합류한 뒤부터 회사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두루 섭렵하며 가는 자리마다 능력을 인정받았다.

2007년에는 부동산금융센터장(상무보)으로 승진하며 최연소 상무가 됐고, 2012년에는 한투증권 최연소 전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16년에는 한투증권 IB부문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IB그룹장’까지 달았다. 이는 당시 대형증권사 IB대표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기도 했다.

2019년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을 맡아 AM 부문을 이끌 동안에는 차별화한 상품공급과 자산관리 경쟁력을 통해 국내 증권사 최초로 개인고객 금융상품잔액 50조원을 돌파하는 공적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김 대표의 경력이 올해 상반기 AM 부문 호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 과감한 조직개편 ‘김성환號’, 인재들 에겐 ABC 강조

김성환 대표가 이끄는 한투증권은 올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5월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의 ‘KIS 나이트(KIS Night in New York)’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한국투자증권

대형증권사 최연소 IB 그룹장 ‘ABC’ 비전 기반 세대교체 주도 반년만에 개인고객잔고 10조 증가 ‘우수한 상품 고객에게 전달할 것’

해 들어 단행한 공격적인 투자은행(IB) 조직 개편을 통해 해당 부문에서 큰 몫을 행친 모습이다.

‘김성환號(호)’는 PF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전통 IB 부문 강화에 힘을 실었다. 올해 1분기 IB 수익으로 1644억원을 거둔 한투증권은 2분기에도 1681억원의 IB 수익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39.1% 증가한 수치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IB그룹장을 선임하지 않고 조직 개편으로 IB 조직을 강화하며 종횡무진 활약했다.

한투증권의 IB 1~4본부 중 최신희 IB1본부장만 유임되고 IB2~IB4본부 임원은 모두 신입 본부장으로 교체했다. 또한 IB1본부 산하에 ‘기업공개(IPO) 1담당’을 신설하며 2분기 주식발행시장(ECM)·채권발행시장(DCM)에서도 고른 실적을 올렸다. 2분기 한투증권은 기업공개(IPO) 주관 실적에서 인수금액 기준으로 리그테이블 3위(1922억원)에

올랐다. 게임업계 대어로 지난 7월11일 상장한 시프트업 공동 주관을 맡은 덕분이다.

하우스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강조한 ‘ABC’라는 목표에 따라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마음속에 ‘ABC’를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A는 ‘Aim Higher(보다 높은 목표)’를, B는 ‘Best Expert(최고의 전문가)’를, C는 ‘Creative(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그는 “높은 이상과 목표는 변화와 혁신을 촉진, 조직의 원동력이 되고, ‘넘사벽’의 실력을 갖춰야 고객의 신뢰를 얻고 경쟁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며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과감히 추진하는 직원을 우대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 “고객 만족 중요해”…글로벌·디지털·리스크 관리 집중

이런 김 대표의 임기 내 목표는 한투증권 모든 사업의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다.

김 대표는 “고객은 이제, 어딜 가도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상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평균’이 사라진 소비 패턴에 맞춰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

서 좋은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우수한 상품과 딜을 적극적으로 런칭하고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객과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다. 김 대표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체감하고 활용하고 협업과 고객의 니즈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기술(IT)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IT본부와 DT(디지털전환)본부, 정보보호 담당 등 3개 본부를 통합해 총원 300명에 육박하는 디지털본부를 꾸리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출시된 ‘MY AI’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 여건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로보어드바이저 랩(WRAP)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고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한투증권이 전사적으로 서로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영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임사 때 언급된 목표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프로필



1969년 11월 21일 서울출생
 ■당곡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경제학과 졸업
 ■건국대부동산금융석사·부동산금융박사수료

- 2001년 LG투자증권 PF팀
- 2005년 한국투자증권 DCM부·프로젝트금융부·부동산금융담당
- 2007년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상무·전무
- 2016년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 전무
- 2017년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총괄 부사장
- 2019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 부사장
- 2024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정부, APEC ‘AI·디지털’ 공급망 협력 이끈다 “개혁과정서 특정세대 과도한 부담 유의해야”

산업부, 3차 APEC 회의 참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최종 승인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인공지능(AI)·디지털 및 공급망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개막해 2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진행중인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와 서비스그룹(GOS),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투자전문가그룹(IEG) 등 산하 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디지털경제와 AI’ 등 역내 협력 사업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안 사업

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디지털경제와 A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 승인 여부는 이달 말 통보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그린전환과 탄소중립 촉진 관련, APEC 역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형성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작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역내 디지털 질서 선도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APEC 역내 AI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 사업 관련 환경, 노동, 거버넌스 등이 거론되나, 미·중 간 공급망을 둘러싼 첨예한

긴장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환경에 초점을 맞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들을 통해 ‘2040년까지 APEC 역내 회원국들이 달성할 ‘푸트라야 비전’을 우리의 통상이익에 부합시키고, 내년 APEC 의장국으로 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역내 주요 통상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산업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푸트라야 비전’은 2040년까지 AP E C 회원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해 역내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 1면 ‘세대별 차등...’서 계속

여당이 모수개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성을 담보할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지는 않겠나”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마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다만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야당이 연금개혁 논의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정부 주도 연금개혁안’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정부안 공개로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혁안들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혁과정에서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지속성을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선진국들도 인구구조 변화 등 변수에 직면했을 때 자동 안정화 도입을 논의했던 만큼, 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할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해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큰 만큼, 불이익을 보완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